

#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이 만난 여성, 그대의 사명은

한신영 선생님(전 샘물초등학교 교장, 현재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박사과정)과 함께한 수다

함께한 리더READER | 김고운, 나연아, 최선희



2016년부터 시작된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 월드뷰를 읽고,  
칼럼니스트 한분과 함께 칼럼과  
미처 쓰지 못한 뒷이야기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호  
〈종교개혁의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의  
한신영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라!**

중세시대에 사제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어요. 그들은 결혼을 개혁하면서 가정을, 사회를 개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말씀’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의 삶이었죠. 암울한 중세시대의 상황을 들여다 볼수록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대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공립학교를 만들고 신학을 가르치는 등을 했죠. 어느 거창한 사람이나 조직이 ‘종교개혁을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혁된 한 사람이 작은 일에도 신앙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반응해서 종교개혁에 이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삶,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학교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곳, 가정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인 가정경건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삶의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교회사, 특히 종교개혁사에서 발견하였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만큼 직접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정정숙 지음)이라는 책을 보니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암흑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이를 배우고 가르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나의 나뉘를 배워요. 교만한 내가, 인내심 없던 내가 자녀를 통해 성장하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해요. 결혼이라

가정경건회는  
예배나, 큐티 설교가 아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예요.

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직접 겪고 자신이 그리 경험했기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정경건회의 표류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자 해서 아이들이 3살부터 가정경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경건회를 시도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배워갔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남편과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인형극도 해 보고, 성경 동화나 그림성경을 읽기도 하고 커서는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교리도 하고요. 점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반응의 시기에 낙담도 하고 고민과 방황도 겪었어요. 뭐든 시큰둥한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렇게 한다고 아이가 경건해질지도 고민하고요. 이런 시기에는 무슨 방법을 써도 아이들은 늘 지켜워해요. 방법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아이의 반응이 힘들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식사할 때마다 성경을 봤는데, 저녁시간에 모이는 10분, 15분이 정말 어려워요. 힘들 때는 중단도 했다가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하고 그 시간을, 자리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가정경건회가 우리 집 문화가 되었다고요.

가정경건회는 예배나, 큐티, 설교가 아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예요. 성경을 함께 읽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고, 말씀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지 억지로 적용거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 짧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하나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김고운** 사실 집안에서 부모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교회 안 간다고 혼나거나 교회에 대해 대화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신앙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거든요. 철들고 나서 엄마와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도 예배지만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기도제목으로 나누는 일상이 늘어나 삶 속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나누는 대화도 깊어지고요.

가정경건회가 효과가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효과의 기준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경건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큰 효과이자 은혜예요.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경건회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한 집안의 책임자이자 영적 리더라는 것을 가족 앞에 자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밤 11시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삶 속에 배어나는 것이 열매야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해요. 요즘처럼 가족 간의 대화마저 사라지는 시대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죠.

**최선희** 어려서부터 저희 집도 가정예배를 했지만, 그냥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눈높이에 맞는 방법은 아니었지만요. 그때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 가정예배란 부

모님의 신앙과 사상이 어떤지 들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사실, 가정경건회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쓰고 있다는 것이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때예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통해 영광을 취하려는 유혹이 어마어마해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솔라sola'가 참으로 맞아요.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꾸세요.**

엄마가 되었을 때 깨어 있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보다 영향력이 큰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게 되요. 엄마의 역할이 정말 커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여성의 사명이 참 커요. 다음세대를 키우는 것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환난의 때(아이가 어릴 때에는 너무 힘드니까)에 대비하여 먼저 내가 성장해야해요.

**나연아** 형부의 직업상 출장이 잦다 보니 엄마로서 언니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커녕 통제도 어렵더라고요. 청교도들의 교육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부모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내 경건생활도 어려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살아갈 터전, 가정교육**

결단해야 해요.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은 어려워도 우선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일단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연습하고 훈련



을 해야 환란같은 그 시기에(웃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훈련이 되어야 아이도 훈련하고 훈육할 수 있어요. 해외의 여러 사례를 보니 우리는 소리를 치고 혼은 내지만 아이를 제대로 훈련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예배드릴 때 돌아다니면, 담요를 작게 펼쳐놓고 장난감 하나를 주어 시간을 정해 놓은 그 시간만큼 담요를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훈련은 안하고 바로 혼내지요.

어렸을 때 구체적인 지침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그 지침대로 훈련을 해야 해요. 훈련을 해도 안 될 때 훈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전제되어야 신앙의 훈련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월드뷰리더READER : 매월 첫 주 목요일, 와우카페(2,4호선 사당역인근)  
문의 :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